

광주시, 1109억 투입 18만 소상공인 자생력 키운다

사업장 임대료 지원 신규 추진 1400억원 규모 대출·이자 지원 지역상생카드로 소비촉진 도모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1109억여 원을 투입, 18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우는 한편 매출 증대를 위한 소비촉진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영업활동 지원 확대 △경기침체 대비 튼튼한 안전망 구축 △소비촉진(내수진작)을 통한 매출 증대 등 3대 방향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경영자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골목상권)특례보증 융자지원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대출규모는 총 1400억원으로 상반기에 1000억원을, 하반기에 400억원을 지원한다. 광주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4700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업체 당 2500만~3000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대출과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저신용자(4등급 이하)는 기본 이자 지원율(3%)에 1%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 신용보증재단은 대출액 전액을 보증하고 협약은행은 대출 지원을, 광주시는 3~4% 이자 지원을 맡는다.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임대료도 지원한다.

광주시는 오는 3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을 대상으로 근로자 신규 채용시 월 50만원의 인건비를 4개월 간 지원한다.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4% 이상의 업체가 만족감을 나타낸 사업인 만큼, 올해 대상 규모를 250여명에서 450여명으로 80%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렸다.

광주시는 올해 신규로 사업장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추경 예산 확보

뒤 추진할 예정이다. 월 최대 30만원 씩 3개월간 총 9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고용 위축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광주시는 30억원을 투입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월평균 보수액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최대 3년(2025년)까지 지원한다. 근로자 1만여 명이 사회보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소비 촉진에도 앞장선다.

특히 정부가 국비를 절반 이상 줄여 위기를 맞았던 상생카드사업도 지속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642억원보다 많은 696억원의 시 예산을 투입한다. 체크·선불카드 1인당 월 50만 원 한도 내 평시 7%, 설·추석(1·9월)에는 한시적으로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상생카드 결제수수료(0.25~0.85%)도 전액 지원받는다.

주재희광주시경제장임실장은“소상공인들이 이번 위기를 잘 버틸 수 있도록 광주상생카드 지속 발행 등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특례보증, 이자보전, 사회보험료 등을 확대해 두터운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지 기자

김영록 지사, 오늘 ‘글로벌 도정행보’ 베트남행

농수산물 수출·우호 교류 확대 전남 관광객 유치 업무 협약 등

김영록(사진) 전남도지사가 민선8기 본격적인 글로벌 도정 행보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태극 방문에 올해 두 번째 해외 방문길에 나선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23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해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 대도약’ 세일즈 도정을 펼친다.

베트남 방문 기간 농수산물 수출 업무 협약, 우호교류 지역과의 교류 확대, 전남 관광 설명회와 관광객 유치 업무협약 등을 한다.

첫 날인 23일엔 호치민 라벨라 호텔에서 농수산물 수출 해외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현지 대형 한인마켓과 농수산물 수출 업무협약을 한다.

24일에는 빈프역성을 방문한다. 빈프역성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지방정부 수장이 전남도를 방문해 우호교류 협약을 한 지역이다.

응웬 만 끄영 빈프역성 당서기, 쩌 뚜에



히엔 인민위원장을 만나 실질적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 날인 25일엔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나트랑에서 ‘2023 전남 방문의 해’를 홍보하는 관광 설명회와 업무협약을 진행한다. 호치민 한인회와 간담회도 진행한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역·투자·수출 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동포를 격려할 예정이다.

또 호치민 총영사관을 방문해 전남 관광 홍보와 농수산물 수출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올해는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선포한 원년”이라며 “지속적인 글로벌 도정활동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남의 자연환경, 문화자산, 기술력 등을 널리 알려 전남의 케이(K)-푸드, K-관광, K-컬처의 진수를 전 세계에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최항지 기자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22일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공연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시민들에게 광주비엔날레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비엔날레 관람 붐업 게릴라 캠페인

입장권 구매하기 이벤트 등

광주시는 2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에서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관람 붐업 캠페인’을 벌였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등 시 직원들과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행사를 관람한 시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홍보물을 배부하며 관람권 구매를 장려했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4월7일부터 94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포함해

도시 전역 14개 전시공간에서 열릴 예정이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러게(soft and weak like water)’를 주제로, 32개국 작가 79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광주시는 역대 최장 기간 열리는 이번 광주비엔날레를 보다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광주비엔날레-광주디자인비엔날레 통합 홍보·마케팅 △시민 1명당 입장권 1매 구매하기 이벤트 △각종 회의·행사 개최 때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 다양한 캠페인을 하는 등 시민과 광주비엔날레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박상지 기자



광산구 ‘물류창고 화재방지 업무협약’ 송호진 광주제3물류센터장, 배정환 제4물류센터장,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김영일 광산소방서장이 22일 광산구 평동산단 내 ‘쿠팡물류센터’에서 물류창고 화재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제공

광주FC 강기정 구단주, 1호 멤버십 카드 구매

“새 역사 기록할 수 있도록 응원”

광주FC 구단주인 강기정 시장이 올해 첫 광주FC 멤버십 카드를 구매했다.

강 시장은 22일 시청에서 광주FC 2023 시즌 멤버십 카드를 구매, 제1호의 주인공이 됐다.

평소 축구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온 강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뒤 가장 먼저 광주

FC를 찾아 선수를 격려하고, 두 차례 경기를 풀타임 관전하는 등 각별한 구단 사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K리그2 우승과 K리그 승격 보너스로 선수단에 1억원을 전달하는 등 사기를 북돋우기도 했다.

강 시장은 “올 시즌 광주FC가 열정적인 경기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구단인 광주FC가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경기장을 찾아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노동일 대표이사는 “구단주의 적극적인 사랑과 관심은 프로축구 발전에 큰 힘이 된다”며 “구단은 포기하지 않는 광주 정신을 승리로써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시장에 이어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도 광주FC의 선전을 기원하며 2호 멤버십을 구입했다. 박상지 기자

상생일자리재단, 광주형 일자리 확산 노무 전문가 모집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광주시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컨설턴트를 오는 3월10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형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은 지역 내 기업이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적정임

금·적정노동시간·노사책임경영·원하청 관계 개선)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확산하는 사업이다.

컨설턴트는 노무 분야에 경력과 자격을 갖춘 공인노무사 5명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지역 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컨설팅

을 진행할 계획이다.

컨설턴트 모집기간은 오는 3월10일까지다.

서면·발표심사(PT)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상생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수 기자

‘전남 바이오 인력양성 협의체’ 화순서 협약식

전남도가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에 본격 나섰다.

전남도는 22일 오전 화순 전남바이오 산업진흥원 생물약역연구센터에서 바이오 캠퍼스 유치 역량 결집을 위해 ‘전남 바이오 인력양성 협의체’를 구성하고 참여 기관과 협약을 했다.

협의체 참여 기관은 전남도, 화순군을 비롯해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미생물실증지원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GC녹십자 화순공장, 화순전남대병원, 전남대 의과대학 등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기관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세계보건기구 인력

양성기관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협력’, ‘바이오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협조’, ‘교육·실습 인프라 공동 이용과 정주여건 개선 지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연간 2000명의 국내외 바이오 인력 양성을 위해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정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공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최항지 기자